

‘홍채인식’에 ‘무선 이어폰’... 혁신 탑재

삼성, 보안의 ‘자유’ VS. 애플, ‘유선’ 으로부터의 자유 추구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인 삼성과 애플이 연이어 하반기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에 불이 붙었다. 두 제품 모두 고객의 눈을 잡을 신 기능을 하나씩 강조한 게 포인트다. 삼성의 갤럭시노트7과 아이폰7의 공통점은 외관으로 전자들과 큰 차별화를 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스펙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만한 혁신을 탑재해 명실상부한 유명 브랜드의 힘을 보여줬다.

삼성 갤럭시노트7은 ‘홍채인식’을 통한 보안을 강조해 사용자들에게 접근했다. 나뭇잎 눈을 맞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사용자들의 감성과 보안 신뢰도를 동시에 자극했다. 갤럭시노트7의 홍채인식은 스마트폰 본체 전면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술이다. 홍채는 지문보다 복잡하고 정교하며, 위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세대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제품에서 삼성전자는 보안 플랫폼인 Knox(Knox)와 함께 최고 수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했다.

단순히 휴대폰 잠금 뿐 아니라 홍채 인식을 이용해 각종 웹 사이트 로그인이나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패스’ 기능도 새롭게 탑재돼 주목을 받았다. 개인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보안 폴더’ 기능도 선보였다. 삼성이 보안의 자유를 추구했다면 아이폰7은 ‘유선’ 으로부터의 자유에 혁신의 초점을 맞췄다. 아이폰7의 가장 큰 변화는 3.5mm의 이어폰 단자가 제거됐다는 점이다. 애플은 대체재로 자체 개발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공개했다. 케이스를 열면 즉각 아이폰과 애플 위치에 연결되며 ‘시리’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이어폰을 귀에 꽂는 행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듀얼 광학

센서와 동작 가속도계도 탑재했다. 귀에서 이어폰을 빼면 바로 음악 재생이 중지되며 다시 꽂으면 자동 재생된다. 가속도계는 사람이 말할 때를 감지한다. 삼성과 애플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에서 큰 변화를 시도한 것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대안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지층을 위해 지닌 변화는 삼가하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을 정도의 신기능을 갖추는 전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뉴스

시설·인력 갖춘 자동차 제작자에 튜닝 허용

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캠핑카·내장탑차 등 대상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튜닝 작업 분야는 푸드트럭, 캠핑카, 내장 탑차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전까지 튜닝 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됐을 뿐 이들 분야 자동차 제작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 튜닝 작업을 허용함으로써 튜닝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 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시설면적 400㎡ 이상,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이상의 기술 인력 1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도장 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제동(브레이크)능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를 갖추도록 했다. 이는 튜닝 작업을 마친 뒤 자체적인 차량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제작자는 튜닝 승인과 작업 등 절차를 마치면 그 내용을 자동차 관리 사업자 포털 사이트(<http://tiz.ecar.go.kr>)에 입력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작업 의뢰자에게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의뢰자는 이를 소지한 채 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해 관련 검사를 받으면 튜닝 절차가 모두 끝난다. /뉴스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편리해진다

가·감속차로 보완, 화장실 확충 등 설치기준 마련 계획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언론과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졸음쉼터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40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55%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화장실 등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권익위는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고,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기로 했다.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장실(전체 116곳),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한은 “수출 일시적 소폭 증가... 내수 개선 움직임 이어가”

9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수출 401억달러, 2.6% ↑ 주택·전셋값 상승세 우려

한국은행이 수출 회복세 등을 근거로 국내 경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8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고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9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국내경제와 관련해 “수출이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된 가운데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력 품목의 수출과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은 401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20개월 만이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한은은 “국내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소비 등 내수는 완만하나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전기토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포니2 보러 오세요 SK엔카직영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1층 주라기 광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추억의 올드카 ‘포니2’가 전시된다.

또 지난달 “낮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던 주택매매가격과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언급, 주택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다소 키웠다.

8월 금융시장 상황은 “주가 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지속 등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상승했다”며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변화 등에 따라 상승 후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

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지난 달과 동일하게 평가했다.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고려할 주요 요소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꼽았다. /뉴스

네이버, 동영상 콘텐츠 사업에 150억 투자

네이버가 동영상 콘텐츠 사업에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네이버는 웹드라마·웹예능·뷰티·키즈·게임 등 동영상 콘텐츠 5개 분야에 연간 50억원, 3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흐름이 텍스트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글의 ‘유튜브’와 국내 ‘아프리카tv’ 등이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석권한 가운데 네이버가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네이버는 웹드라마와 웹예능 제작자들이 좋은 작품을 지속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연간 11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수·좋아요수·구독자 수를 다양하게 고려 웹드라마 10편·웹예능 36편 등 연간 총 46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웹드라마와 웹예능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TV캐스트에 입점한 작품들에도 소급 적용된다. 네이버는 올 연말 이용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전달한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